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 **당회:** 1부 예배 후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 ◎ **창립주일:**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3주년 주일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 ◎ **창립 감사 축제:** 교회 창립 13주년 감사 음악 축제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공동체별, 선교회별, 개인 혹은 가족별 등으로 오는 수요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7월 11일 (수) 오후 6시 장소: 본당 및 Hall
진행 - 1부: 예배, 2부: 축제 및 교제 담당: 교역자, 김수원 집사
- ◎ **기도회:**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7월 2일(월) ~ 7월 6일(금)까지 실시합니다.
주제: 속 사람을 강건하게 (엡 3:16) 장소: Chapel Room 시간: 오전 5시 30분
기도 - 2일: 김순자, 3일: 이규임, 4일: 이기중, 5일: 임병숙, 6일: 임혜자
찬양 - 2일: 공동체장 및 인도자, 3일: 여선교회 임원, 4일: 장로 및 안수집사 부부
5일: 학생회, 6일: 남선교회 임원
- ◎ **모임:** 바자회 준비를 위한 담당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 ◎ **감사:** 밀알 쿠키 판매에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구입:** 말씀 목상을 위한 생명의 삶 8월호를 다음 주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선불, 8불)
- ◎ **월례회:** 1남 선교회(결혼-66년생), 4여 선교회(52년생 이후) 월례회가 아동부실과 친교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7월 새벽 기도회 본문

6일: 누가복음 1:67-80 혈육보다 우선 할 하나님의 나라 13일: 누가복음 3:21-38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되다
20일: 누가복음 6:1-11 형식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 27일: 누가복음 7:36-50 용서받은 여인의 큰 사랑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사사역)
중국: 김강환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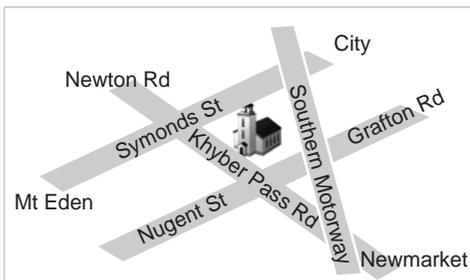


밀알장애우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7월 1일

14권 27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이거 연습인데요

“이 목사님, 김** 목사입니다. 이것은 연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답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문자메세지 보내는것이 서툴러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지난 목요일 오전에 받은 문자 메시지로 올해로 여든의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노 목사님이 보낸 글에 대한 저의 답신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거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 문자 메시지 편리함과 유익함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러나 그 폐해도 여간 심각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문자 삼매경, 예배 도중에도 문자를 하는 것은 이미 예삿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종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보면서 저를 연습 상대로 삼았다는 것이 참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알고 계시는 목사들이 한 두 분이 아닐 텐데 그 순간에 그 목사님에게 생각난 사람이 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많은 분들 가운데서 제가 그 목사님에 기억된 바 되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 왔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데 혼자서 감동한다구요? 그런가요?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나 화급을 다루는 일이 부지중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기억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60억의 인구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연습 상대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복의 통로로 나를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못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카카오톡 친구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순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에 들었던 어른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하고 과언이 아닌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을 배우려는 열정이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손주들과의 눈높이를 함께 하시려는 할아버지의 내리사랑일수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르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 나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공유하려는 노종의 의지는 저에게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심령을 깨우는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려는 사모함과 열정이 어느 정도이니?” “저...저... ㅜ . 부끄러워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잠시 갠 구름 사이로 새파란 하늘이 살포시 수줍은 듯 웃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한번 보내보시죠? “이거 연습인데요 사랑합니다. 답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 이태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00:1-3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19장	다함께
※ 성서교독	62. 시편 143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528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 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4:20-24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이태한 목사
찬송	542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 지난주: \$ 4.40
총계: \$ 611,893.19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원미경 집사
성경봉독 / 출 40:17-33
설교 / 명령하신 그대로 / 심창진 목사
찬송 / 사랑의 그늘에 앉아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수요찬양단
기도 / 박수현 집사
성경 / 사 10:9-18
설교 / 하나님의 결단 / 이태한 목사
합심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찬송 / 569장
주기도 / 다함께

공동체를 위한 금주의 기도제목

- 이집트 공동체**
영주권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가정 경제와 비즈니스의 협동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게 성장하도록.
- 캄보디아 공동체**
한국에 계신 노부모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위해, 시력회복을 위해, 딸과 손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7월 중 예정인 백내장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들, 딸들의 배필을 찾을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하는 골프 운동이 유익하고 즐겁도록.
- 태국 공동체**
공동체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인도 하심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김자선, 강정인 선교사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선교의 열매가 크게 맺히도록.
- 교회연합**
교회 창립 13주년 예배와 감사 축제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모든 성도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성전 건물매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온 성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11월에 있을 바자회 준비가 잘 진행되고 준비하는 지체들에게 지혜가, 모든 성도들이 잘 협력 하도록.

HELP IN TIME OF NEED

Relief in Time of Suffering - 고통 속에 있는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3...

Hebrew 12:9-13 [히브리서12장9절-13절]

Since we respect our earthly fathers who disciplined us, should we not all the more cheerfully submit to the discipline of our heavenly Father and live forever?
우리를 나아준 아버지가 견책 해도 우리가 그를 존경한다면 영적인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For our earthly fathers disciplined us for a few years, doing the best they knew how. But God's discipline is always right and good for us because it means we will share in his holiness.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잠시동안 자기 판단대로 우리를 견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익을 주며 우리를 당신처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No discipline is enjoyable while it is happening - it is painful! But afterward there will be a quiet harvest of right living for those who are trained in this way.
무슨 견책이든지 그 당장에는 즐겁기 보다는 오히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책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어 올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So take a new grip with your tired hands and stand firm on your shaky legs.
그러므로 여러분은 힘없이 늘어진 손을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Mark out a straight path for your feet. Then those who follow you, though they are weak and lame, will not stumble and fall but will become strong.
그리고 바른길로 걸어 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 경덕현 집사 제공

◎ 7월 교회알지

특별 새벽기도회:
7월 2일 ~ 7월 6일
창립 기념주일:
7월 8일 (주일)
창립 감사축제:
7월 11일 (수)

◎ 7월 예배봉사가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수요기도: 박수현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윤형권 집사
다음 주일 1부: 최득수 집사
다음 주일 2부: 박덕철 집사
7월 11일 수요기도: 박영태 집사
7월 11일 애찬기도: 원미경 집사
7월 15일 1부: 이광희 장로
7월 15일 2부: 김수현 청년